

■ 법률 칼럼

법, 도덕, 그리고 윤리

그는 머릿속이 꽉 찬 남자다. 수재들만 입학한다는 최고의 명문대에서 문과와 이과를 모두 섭렵하며 박사학위를 두 개나 받았으며 무려 3개 국어에 능통하다. 굳이 이력서를 들춰보지 않아도 엘리트의 정석 코스를 밟은 그의 박학다식함은 언행에서 묻어나온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청산유수처럼 대답하며, 가끔씩은 물어보지 않아도 넘치는 지식을 나누어 준다. 나는 지식을 향한 그의 놀라운 열정과 끊임 없는 발전이 부럽고 존경스러웠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한 정치인을 저주하듯이 비난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타인이 얼마나 가혹하게 심신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를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죄를 지었으니 혹독한 징값을 감당해야 한다는 맥락에 담긴 그의 바람은 설득력이 있는 동시에 다소 잔인하고 섬뜩했다. 그 순간은 웬지 그의 해박한 지식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약이 아니라 그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독으로 작용되는 것 같았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던 화를 낼 이유도 없을 텐데, 아는 것이 남들보다 많은 그의 눈에는 남들의 잘못된 점들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았다. 문득, '선하게 쓰이지 못하는 지식이 과연 훌륭한 지식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도덕'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잘못된 이상주의자일 뿐인지도 모르겠다. 어느덧 이 사회에서의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법의 관행적 여론으로 다스려지며, 바야흐로 타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방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똑똑한 그의 말대로 도덕적인 상식과 법치주의의 여론이 완벽하게 적용된다면, 죄명이 세상에 알려진 이상, 예외로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인들의 화를 부르는 불공평함일 뿐이다. 직권남용을 한 정치인은 여생을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야 이 세상의 속이 시원할 것이다.

도덕적 잣대가 나쁘다고 비꼬려는 게 아니다. 도덕이란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에서 비교적 원만한 인간 상호 관계를 성립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결합되어 탄생한 문명의 최선 아닌가. 문제는 수많은 이들이 너무나 마음대로 본인들의 잣대로 타인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일삼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물론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외적으로 표출되는 단면적인 행동으로 한 사람의 전면적인 내면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망각한 채로 모두가 모두를 끊임 없이 심판한다.

한 사람의 선택에 흠집을 만한 결과가 수면에 오르며 질타를 받게 되는 기준이, 범법이나 불법이 아님에도, 그저 그것을 문제 삼는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 시 되며 가혹해졌다. 특히 공인은 더 '좋은 사람'으로 살기가 힘들다. 한 순간의 상황에 부적절한 인상만 사진에 찍혀도, 무심코 말을 내뱉어도, 못모르던 시절에 실수를 했어도, 남들이 매일 하는 실수를 해도, 지극히 단면만을 겪어 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며 피해의식에 젖은 여론의 못매를 맞는다.

과연 우리는 무슨 억하심정으로 남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채찍질을 가할까? '비록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지만, 옆집 이지연이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흉흉합니다!' 라는 변론을 하기 위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만 서로를 판단하기에 급급한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회는 사랑이 아닌 비난이 넘쳐나는 곳이다. 우리가 이 탈진실의 시대에서 감정에만 치우쳐 너무 큰 에너지를 소모하며 실속을 찾는 법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정으로만 믿는데 익숙한 우리에게 아무리 선의를 지니고 있어도 행동의 결과가 항상 그와 일치하기에 힘든 이 사회에서 진실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싶은 회의가 든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bridge.com
www.jbridge.com



■ 건강 칼럼

질병은 예방하는 것이 최고 '바이오마커'

건강은 타고난 복일까? 아니면 올바른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암이나 질병을 피하지 못하는 이웃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업무상 찾아 뵈던 암 전문 교수님으로부터 통계상 담배를 피우는 남자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가정주부가 더 폐암에 많이 걸려 암병동을 찾는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다면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것은 무엇일까? 폐암에 걸린 가정주부는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었기에 암에 걸렸을까? 스트레스, 24시간 노동, 육아, 요리, 청소에서 오는 피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현대 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독소와 영양 결핍에 대해서 살펴본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 오염된 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정제된 물, 화학비료로 재배된 과일과 채소,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첨가된 인공 첨가물, 방부제가 첨가된 화장품이나 샴푸, 청소나 빨래에 사용되는 화학 세제 등 우리가 접하는 화학 물질이 100가지가 넘고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만 200가지가 넘는다.

게다가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했을지언정 음식에 들어 있는 천연의 영양소 섭취만으로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었지만, 인공 감미료나 색소, 방부제, 화학비료 등에 노출되고 첨가된 음식을 섭취하는 현대인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되어도 영양 결핍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가 지나치게 복잡화, 다양화, 기능화함에 따라 나타난 각종 정신병, 공해병, 직업병, 성인병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독소와 영양결핍,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건강의 척도로서 바이오마커(생체지표)가 사용된다. 바이오마커란 발암, 유전 질환, 노화 등이 진행되는 단계 중 특징적으

로 나타나는 형태학적,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변화로 생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BMI(Body Mass Index)라고 불리는 신체질량지수, 혈압, 맥박, 체온, DNA(유전자), 혈액, 소변, 타액 등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바이오마커이다. 바이오마커로 우리 몸의 독소, 영양의 과잉 또는 결핍 상태, 스트레스, 유전적으로 취약한 병까지 알 수 있다.

바이오마커가 정상적인 수치에 해당하고, 바이오마커를 통해 다가올 질병이나 증상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식습관과 생활을 하며 운동을 지속할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발견된 병이 없거나 아픈 곳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질병은 갑자기 걸리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지속적으로 독소에 노출되고 신체에 필요한 요소가 결핍되어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거나 인체의 세포가 돌연변이 되면 질병이 생긴다.

병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병에 걸리면 건강한 몸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오마커를 검사하여 자신이 당뇨, 혈압, 암, 치매, 중풍 등의 다양한 질병 가운데 어떤 병에 더 취약한지 미리 알고, 그를 예방하는 식습관과 생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i-Fragility Health Clinic>(이하 AFH 클리닉)에서는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바이오마커를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와 환경, 유전적 취약점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신체 요구에 맞춘 각각의 생활 양식과 치료를 제공한다.

건강한 개개인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함께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 동역자가 되는 것이 <AFH 클리닉>의 목표이자 비전이다.

Dr. Sung Hye Yi
President & COO
Advanced Research Center, Inc.
www.anti-fragilityhealth.com
TEL (714) 999-6688
1020 S. Anaheim Blvd, #316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